

‘춤 허용 조례’ 면밀한 검토없이 제정

광주 서구의회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지적...조례 폐지 권고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상무 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광주 서구의회 특별위원회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춤 허용 조례’의 폐지를 권고했다.

서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 동안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특위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는 ‘춤 허용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한 부실한 운영사항, 인허가 과정에서 졸속행정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충분한 사전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으며 각종 행정적 문제와 별개로 건축행정에서 불법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태도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또 위생부서에서의 지도점검조차도 소관업무 외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통해 업주들의 방만한 운영의 단초가 이뤄졌다고 했다.

특위는 먼저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했다.

조례 제정 시 대상 업소에 대한 현황자료 및 영업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발의자의 제안내용으로만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점검의 임의규정 제정과 특수 조명시설 설치기준이 삭제된 부분은 조례 입안의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각종 행정적인 허점도 확인됐다. 특위는 서구청이 ‘춤 허용 조례’ 제정 당시 불법건축물 단속 등 안전점검에 청원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이 청원경찰은 풍압동과 금호동, 광천동에 대한 위반건축물 단속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원경찰은 해당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속 인력 부족 논란과 함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특혜성 논란이 제기된 ‘춤 허

용 조례’ 관련 구의원과 공무원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조례안 논의가 본격화 된 2016년 5월11일 이전에 서구 공무원들이 4차례 서울 등지를 찾은 것을 확인, 구청에서 조례 제정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 첫 방만한 공무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한 달 후 다른 공무원들을 보냈고, 전에 나간 공무원들과는 달리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례 제정을 서구에서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에서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할 지자체가 지정업소 변경 지정을 하루 안에 마무리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졸속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A클럽은 조례 제정 4일 뒤인 7월15일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을 서구에 제출했고, 사흘 뒤인 18일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A클럽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같은날 A클럽에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했다.

또다른 신청업소였던 B주점은 8월19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했고, 하루만에 현장조사와 업소지정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A클럽의 경우 안전요원 명단에 공동대표 2명을 포함시켰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 중 1명은 소방관리자라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출된 서류에도 허점이 있었지만 A클럽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지적과 정기점검을 통보하는 시점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영 서구의원은 “영업장 면적과 신청서 면적이 다르게 신청이 됐어야 했음에도 A클럽의 경우 똑같은 면적이 신청됐고, 서구는 이를 승인했다”며 “이 밖에도 춤

지정 신청을 서구에 제출했고, 사흘 뒤인 18일 광주 서구 공무원들이 A클럽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서구는 같은날 A클럽에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했다.

또다른 신청업소였던 B주점은 8월19일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했고, 하루만에 현장조사와 업소지정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A클럽의 경우 안전요원 명단에 공동대표 2명을 포함시켰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대표 중 1명은 소방관리자라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출된 서류에도 허점이 있었지만 A클럽의 경우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지적과 정기점검을 통보하는 시점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영 서구의원은 “영업장 면적과 신청서 면적이 다르게 신청이 됐어야 했음에도 A클럽의 경우 똑같은 면적이 신청됐고, 서구는 이를 승인했다”며 “이 밖에도 춤

허용업소 지정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하루만에 끝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국가안전대진단 선정기준에 따라 구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표준안을 만들고, 의회보고 절차 매뉴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도단속과 안전점검시 해당 부서, 관련기관과 상호협조 있는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인력 부족 등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도 만들라고 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었던 탓에 전 공무원들과 의원 등이 조사과정에서 불참했고, 일부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특위활동 중 빠지는 등의 일로 인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서구의회 한 의원은 “특위에서 한 의원들의 질문 중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질문되기도 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신기한인공 손 모형 1일 대구 북구 신격동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19 대구과학축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스마트 의로봇 과학원리 체험관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이 실제로 연구하는 스마트 로봇 의수(義手·인공

전남경찰, 추석 맞아 특별치안활동 전개

전남지방경찰청이 추석 전후 체계적인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부터 15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펼친다. 추석을 앞둔 2일부터 8일까지는

1단계로 분류하고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소규모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대해 취약요인을 진단해 보완을 권고한다. 또 범죄예방요령과 신고방법 등

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가 한창인 9일부터 15일까지는 2단계로 분류, 지역경찰과 형사, 상설중대 등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조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뉴스1

양식장서 작업 중 어선 전복...인명피해 無

여수의 한 양식장에서 고정설치 작업을 하던 중 어선이 전복돼 물에 빠진 선장을 해경이 구조했다.

8월 3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6분쯤 여수시 남면 금호도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H호(9.1톤, 승선원 1명)가 작업 중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해경구조대, 돌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을 신속히 사고 해역으로 출동시켰다. 또 여수연안 VTS에서는 인근에서 항행·조업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요청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해상 추락 후 지력으로 전복선박에 올라와 있던 선장 A씨(55)를 발견하고 H호에 등선해 구조한 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 해경구조대가 연이어 도착해 수중에 입수, 전복된 H호 선내 유류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선박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H호는 크레인을 이용해 양식장 고정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박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전복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서 ‘절도형 보이소피싱’ 잇따라 발생

광주에서 절도형 보이소피싱 범행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월 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보이소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8월 29일 오후 4시쯤 보이소피싱범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남성은 A씨에게 경찰을 사칭한 뒤 돈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이야기했고, A씨는 은행에서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8월 30일 오전에 집을 나선 A씨는 오후 늦은 시간 귀가해보니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 27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절도형 보이소피싱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보이소피싱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놓으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냉장고에 현금 1000만원을 넣어놓았다가 현금을 도난 당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 유튜브 보며 100km 운전

광주의 한 시외버스 운전 기사가 운행 중 유튜브를 시청하며 이질한 곡에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30일 광주 A업체에 따르면 시외버스 기사 B씨가 8월 28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에서 출발한 순천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운전했다.

당시 버스는 3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가운데 시속 100km 속도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휴대전화를 이용, 유튜브를 보면서 운전해 차량이 좌우로 왔다갔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유튜브를 보면서 운전한 사실은 버스에 탑승한 한 승객이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구속영장

강원 홍천경찰서는 8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한 지방도 왕복 2차선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역방향으로 가던 50대 B씨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